

## FIFA, 멕시코 골키퍼 랑헬 주목…"한국전, 특별한 경기 될 것"[월드컵24시]

등록 2026.06.17 14:08:00



[멕시코시티=AP/뉴스시스] 멕시코의 골키퍼 라울 랑헬이 11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개막한 2026 국제 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기에서 상대 슈트를 막아내고 있다. 한국의 2차전 상대인 멕시코가 2명이 퇴장당한 남아공에 2-0 승리를 거뒀다. 2026.06.12.

[서울=뉴스시스]문채현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경쟁팀인 멕시코의 골키퍼를 주목했다.

FIFA는 지난 16일(한국 시간) "라울 랑헬이 멕시코의 전설 기에르모 오초아를 밀어냈다"며 "그에게 한국전은 특별한 경기 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랑헬은 지난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치른 대회 개막전에 골키퍼 장갑을 끼고 나섰다. 당시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수들에게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으며 팀의 2-0 승리에 큰 힘을 보탤다.

멕시코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던 루이스 말라곤이 지난 3월 아킬레스건 파열로 월드컵 출전이 무산된 만큼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2022 카타르 대회에서 활약했던 오초아가 이번 대회에서도 멕시코의 수문장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하비에르 아기에 멕시코 감독의 선택은 오초아가 아니었다.

이에 FIFA는 "월드컵 무대에서 멕시코의 주전 골키퍼가 16년 만에 오초아에서 랑헬로 교체된 셈"이라며 "랑헬은 과달라하라에

서 열리는 한국전 선발 출전도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한국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라는 랑헬의 고향이다.

과달라하라가 위치한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태어난 그는 해당 지역 유스 아카데미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축구선수의 삶을 시작했다.

자신의 삶을 함께한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한국전의 의미는 그에게 남다른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을 상대로는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랑헬이 지킨 멕시코의 골문을 두 번이나 열어젖혔다. 손흥민과 오현규가 후반전 1골씩을 넣었다.

다만 FIFA는 "당시 한국과의 경기는 랑헬의 네 번째 A매치였던 만큼 9개월이 흐른 지금 그는 더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오는 19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경기를 치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